

영화정책 담당한 '영화공무원' 들의 영화사랑

최진용 외 지음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의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영상산업.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이는 것이 '꿈의 예술'로 불리며 내년으로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될 '영화'이다. 철을 녹이고 매연을 내뿜으며 노동자들의 피땀의 댓가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화학 산업이라면, 영상산업은 스티븐 스피버그가 '쥬라기 공원' 하나로 앉은자리에서 큰 공장의 수십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어들인 것에서 보듯 공해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으뜸에 꼽힌다. 따라서 각 나라들이 이 끝없는 고수익 사업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특히 영상산업은 그 대표격으로 불리는 영화는 물론 비디오, CATV, 공중파 TV, LD, CD비전, 비디오게임, 컴퓨터게임, Virtual Reality(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계속하여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각광받는 산업, 그 중의 최고 산업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워너 브라더스'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저 꿈 같은 일일 뿐, 우리의 영상산업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만큼 영상산업은 한순간의 물량 투입이나 일시적인 관심집중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축적된 문화·기술 역량이 바탕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극히 첨단 산업이다.

문화체육부 공무원 7인의 공동 저술

최근 출간된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집문당)은 앞서의 지적과 같이 "미래는 영상산업의 전쟁"이라는 현실인식에서 출발, 그 대표분야인 영화산업, 낙후하다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점검해본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 영화가 진창을 헤매고 있는 것은 영화담당 관리들 때문이다"는 영화인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문화체육부의 영화관련 부처 사무관에서부터 주사보까지 7명의 공무원들이다. 이 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라니와 저자들의 그런 특이성 때문. 여태 영화관련 정책 제안이나 우리 영화업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대다수는 관련 학자 및 영화제작자들을 통하여 입으로 글로 거개가 쏟아져나왔기 때문에 적(?)으로 경원시되는 공무원들이 펴낸 이 책은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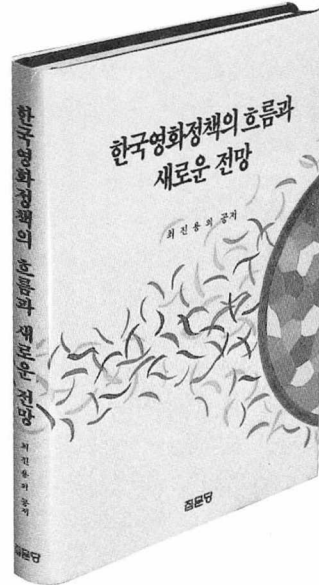
저자들은 서문에서 "우리는 영화현장에서

다가올 세기는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가 이뤄지는 시대. 위성방송의 도래로 다채널·다매체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상소프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저자 중 최진용씨는 "이같이 무한경쟁시대에 문화제국주의의 무차별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의 위치마저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고 고수위 경고를 한다.

열심히 뛰는 영화인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우리 영화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영화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영화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일했다"며 소박한 영화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그들이 "일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우리영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 그 넘치는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하여 영화인과 영화정책자 간의 견해와 입장 비교를 비롯해, 21세기의 국제사업이라 할 만한 영화·영상산업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 최진용 과장이 쓴 '21세기 영상혁명시대의 영상정책'은 영상산업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개괄해 보는 글이다. 저자는 "다가올 세기는 소비의 고급화 시대, 개성화 시대가 됨으로써 하이테크(High-Tech)와 하이아트(High-Art)가 결합한 상품만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가 이뤄지는 시대"라고 전제, "본격적인 위성방송의 도래로 다채널·다매체화가 가속화되면 영상소프트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전과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치열한 영상전쟁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생활문화와 위옥환 사무관의 '영상산업의 현황과 그 전망'에서는 갈수록 외국영상물의 국내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의 영상산업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자본, 시설, 상영관, 관객, 배급구조, 전문인력, 수출시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영화, 비디오, CD, LD 등 영상산업에 대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이



미 각축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저자는 "대기업의 자본과 인력만으로는 절대로 영상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영상물의 창작 자체는 전문영화사와 영화인에게 간섭없이 맡겨야 함을, 마케팅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본영화 수입허용 본격 제안

영화진흥과 김성일 사무관은 얼마전 타결된 UR이 우리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의 변화양상을 탐색한다. 그는 'UR, 국제화와 한국영화의 진로' 논문에서 UR 타결과 정에서 단결된 힘으로 미국의 힘을 견제해낸 EU(유럽공동체)의 대응방법을 본받을 사례로 제시한다. 미국은 유럽 영화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으나 EU시청각물의 미국판매액은 6.5%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 이도 모자라 양측의 교역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서 프랑스로 대표되는 EU측은 "문화를 일 반상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기세를 꺾은 것. 예술진흥과 노정동 주사의 '미국직배 영화사의 출현, 그 파장과 영향'은 미국영화 직배 이후 6년여간의 우리 영화 시장의 침체를 수치를 들어가며 보여주고 있어 앞서의 EU 사례와 좋은 비교가 된다.

'미국직배영화사 ...'를 쓴 노정동 주사의 '홍콩영화의 수입현황 및 흥행실태분석'과 이 책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저자가 아닌 조희문(경인일보 논설위원)씨의 '일본영화 수입개방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두 글은 각각 우리 영화시장에서 헐리우드영화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콩영화와, 북한영화와 더

불어 유일하게 상영이 금지되고 있는 일본영화에 대한 논의여서 눈길을 끈다. 특히 조희문씨는 "일본영화의 수입은 이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의 시기와 방법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필요한 완충기는 "3~5년 정도"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제침략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법규와 시책을 다룬 '영화법규와 시책으로 살펴본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김홍동, 문화정책과 주사)과, 각국의 필름보존사례를 통해 우리영상자료 보존에 대해 살펴본 '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영상자료의 합리적 보존 방안'(김동하, 영화진흥과 주사보) 두 편의 글은 각각 우리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료성 짙은 정리물. 정책실무자의 특장을 살려 일반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망라 영화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게 했으며, 김동하 씨의 논문은 영상자료관리의 법제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글이다. 이밖에도 손용문 씨의 '내가 본 충무로'는 영화진흥과의 영상기사로 10년여간 재직하며 바라본 '충무로 영화관' 이야기다. 한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기까지 극장과 영화사와의 관계, 영화관 사람들의 동향 및 영화관련 기관의 현황 등이 다채롭게 기술돼 있다.

"21C 대표산업" 民·官 공동대응해야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체계적인 우리영화 입문서로 읽힐 수도 있고, 자료 나열의 지나치게 개괄적인 서술로 비판받을 수 있는 두 가지면을 이 책은 다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떤 책이건 다 갖게 마련인 한계로, 따라서 그것이 큰 허물은 되지 않을 듯싶다. 이 책이 지닌 무엇보다 소중한 장점은 영화인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배척당해온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영화인들과는 또다른 각도에서 영화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미래 한국 영상산업을 걱정하는 주체는 비단 제작자들만이 아니라 정책입안자(정부)들도 포함되며, 이는 미래의 영상산업은 이전과 같이 더이상 영화인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국제사업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전면 문제가 돼 있음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 정혜옥 기자